



LIVING WITH SLOW DISASTER

PNU SSK 느린 재난

이태원 참사, 애도와 회복을 위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성 : 부산대 SSK 느린 재난 연구팀 - 유정 (서경대, 심리학), 최은경(경북대, 의학), 이성용(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평화학), 주윤정(부산대, 사회학) livingwithslowdisaster.net

자문 : 김기흥(포스텍, 과학기술학), 이동신(서울대, 영문학), 이일래(부산대, 사회학), 김호경(서울대, 생태학), 박혜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문: <https://bit.ly/3Whaexr>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대학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살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직접 경험자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자에게도 상당한 충격입니다. 현재 20대의 정신건강은 우려스러우며, 코로나 이후 여성 청년 자살률의 증가 등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세대는 10대 때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세대이기에, 또래 집단에서 발생한 참사는 누적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트라우마는 결국 책임있는 이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사회와 권위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책임있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이 책임있게 교육현장에서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충격적 참사를 겪은 우리들이 겪어내야 할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상호 돌볼 수 있는 방향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의 역할

- 대학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청년들은 대학의 교육과 여러 활동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그렇기에 엄청난 참사에 대해 대학에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내 보건체계에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기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게 이 정보가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의 역할

- 교육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교육자인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로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별한 대응을 통해 불안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교육자는 또한 학생들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내의 심리상담기관, 그리고 학외의 국가트라우마센터, 청년 심리 상담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업이나, 학과 단위, 혹은 연구소 등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애도의 형식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생각해야 할 점

- 단기적 고려 사항
 - 영향의 범위: 부상자(생존자), 목격자, SNS 등 미디어를 통한 목격자,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자, 시민 일반 등 각각에 따라 다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현재 20대의 정신 건강, 그리고 세월호를 청소년 시절에 겪은 세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학생들의 충격 정도와 그 발현정도는 상이합니다. 무덤덤해보이는 경우에도, 이후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상태에서도, 내면적으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인식,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 특히 SNS 미디어를 통한 트라우마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 취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불안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불안감을 강하게 느낄 경우 안전감을 느낄 수 있고, 지지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느끼는 감정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 갑자기 화가 남. 분노, 비참함, 슬픔, 불안함, 우울함, 무감각, 무기력, 멍함, 죄책감, 두려움 등
 -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악몽 꿈, 불면 또는 잠에 빠져들
 - 끔찍한 장면이 떠오름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표현, 그리고 피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발언에 대해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로윈 문화를 일탈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직접 목격자나 생존자가 있을 경우,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말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 “이해한다” “안다”라는 말을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목격, 혹은 간접 목격한 경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견디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은 트라우마의 내적 소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학생들과의 대화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머무르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가진단 툴을 활용해서,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할 경우(신체적 증상),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 고려 사항

- 사회적 참사는 길게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었다 해도 이런 재난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재발 방지와 더불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여러 선생님들이 이 참사를 통해 생각해봐야 할 점으로 현재 청년의 고단한 삶과 할로윈 문화의 연관성, 대학의 축제 문화, 도시의 인구밀집도, 안전에 대한 일상의 감각, 위험사회의 문제제기 등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이 참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각 분과학문에서 재난과 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커리큘럼이 개발되어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 현장에서 기본적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압박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을 학교 현장에서 배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학내에서도 축제 및 혼잡한 버스 등 군중이 밀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내에도 다양한 차원의 안전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기존에 관성적으로 행해왔던 관행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내 안전 점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참사 이후 스트레스 다루기

참사 후 리더십 의사소통

트라우마 체크해보기: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중 리더 대응 관련 미국 CDC 자료

재난과 참사 스트레스 다루기 미국 CDC 자료

재난 강의 자료

세월호교실 (teachsewol.org)

일본 311 [Teach311 + COVID-19] Collective

*부산대 SSK 느린 재난 연구팀에서 제작한 가이드입니다.

자료와 지침의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연구팀의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livingwithslowdisaster@gmail.com

First Published. 2022.11.02.